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4(土)	5(日)
흐린뒤 맑음 6/17℃	맑음 5/18℃

News

- 2011 광주 환경엑스포 ②
- '나무 할아버지' 박형만씨 ③
- 프로야구 오늘 '플레이볼' ⑭

Entertainment

- '남자 이야기' 박용하 ⑦



- 눈길 끄는 옴니버스 영화 ⑩

Wellbeing

- 천연화장품 만들어 써요 ⑤

Books

- 링컨 대통령과 우울증 ⑧
- 종이의 탄생·진화 과정 ⑨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지난 2013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대학생지원단으로 구성된 '빛고우리' 회원들이 2015U대회 실사를 앞두고 광주시청에서 대회 유치에 임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 줄 왼쪽부터 김창영, 김소미, 김보라미, 이종진, 전진, 안동욱, 김광희씨. 뒷 줄 왼쪽부터 김성오, 김은지, 흥민호, 조아라, 공해정, 임보미, 주장호씨.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U대회 유치 자원봉사자들 다시 하나로 뭉쳐

“빛고을 대학생 열망 보여주겠다”

‘빛고우리’ 결성 실사단 환영행사 주도



“두 해 동안 유치를 열원해왔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번에는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유치 대학생 지원단으로 활동했던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3일 2015 하계 U대회 실사준비가 한창인 광주시청을 다시 찾았다. 이들은 지난해 유치활동 당시 땀과 열정, 눈물이 배어있는 빛바랜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국제대학교스포츠포럼(FISU) 실사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2013U대회 유치가 좌절된 후 대학생 지원단은 공식해체됐다. 그러나 U대회 광주개최를 염원하는 이들의 소망마저 꺾지는 못했다.
FISU 총회에서 광주 대회 유치가 무산되자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쏟았던 이들은 광주시의 U대회 재도전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빛고우리'(회장 이광현)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지난해 7월 결성된 이 모임에는 당시 대학생지원단장이었던 이종진씨(29·송원대 졸업)를 비롯해 20여명이 활동 중이다. 전남대, 조선대, 동강대, 송원대 등 광주·전남 주요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U대회 유치 현황을 알리고 광주시의 U대회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빛고우리” 회원들은 지난해 지역 언론사에 꾸준히 U대회 관련 기고를 보내 광주시의 U대회 재도전 결정에 힘을 보탤다. 송원대를 졸업한 뒤에도 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이종진씨는 졸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틈 날 때마다 손님들에게 U대회를 소개하고 있다.
김보라미(25·조선대 영문학과 3년)씨는 “U대회 주역인 대학생들이 외면하면 이 대회 유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모임에 참여 하게됐다”며 “광주시민들이 모두 나서 U대회 유치를 응원한다면 반드시 대회 유치가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빛고우리” 회원들은 U대회 유치 활동을 계기로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돼 활발하게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광주 남구의 한 사회복지단체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캠프에서 언어통역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U대회 유치를 도울 방법을 찾던 끝에 자발적으로 U대회 환영단을 꾸리기로 했다. 회원들은 각자 대학에서 환영단을 모집한 뒤 오는 6일 U대회 실사단이 입국하는 광주공항에서 U대회 유치를 열망하는 대학생들의 열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전해들은 광주시는 빛고우리 회원들이 FISU실사단 방문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빛고우리” 이광현 회장은 “FISU 실사단에 기대 미래 U대회의 주인공이 될 대학생들의 대회 유치열원을 전달해 광주시의 U대회에 유치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北 로켓 발사 ‘초긴장’

빠르면 오늘 ... 미 이지스함 동해 출격

북한이 발사를 준비중인 장거리 로켓에 연료 주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이르면 4일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G20 금융정상회의를 마치고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기상 조건만 허용된다면 4일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P통신도 국방부 고위 정보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이 4일로 예상되는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늦게 “북한이 연료를 주입하고 있으며 다른 발사전 준비작업도 실제 진행중”이라고 확인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오는 4~8일 사이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연료주입 여부는 정보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발사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이미 긴장상태에 있는 역내의 긴장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된다”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약속한 사항을 이행토록 하는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다시 불러들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북한의 무수단리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 위성사진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로켓에 탑재된 것이 인공위성과 비슷한 장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어도어 포스텔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위성의 무게가 330~880파운드(약 150~400kg)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군도 로켓 발사 직전 신호를 감지하고 발사 뒤 궤적을 추적하는 레이더와 광학측정장비, 정찰기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미 북한 로켓의 발사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 최선에 이지스함인 미국의 채퍼함과 존 매케인함,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동태로 출격 한 상태다. 통일부도 지난달 27일 설치한 ‘북한 미사일 상황대책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로켓발사 요격에 대비해 무수단리 인근 지역으로 미그 23기 대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낙태 허용,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

복지부 모자보건법 입법예고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4주 줄어든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우생학적·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질헌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인 것은 2007년 연세대 법의학 교실 손병세 교수의 연구용역과 지난해 종교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의 협

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없게 되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등이다.
다만 연골무형성증, 남성성유증 등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유전성 질환은 현행대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자궁 내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2층 이하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3세기소리·세기보청기

1338-9400 / 226-222-8111